

SNK, 상장 후 첫 배당 실시 “주주가치 제고”

- 어려움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 되고자 결정
- 국내외 IP 제휴 요청 쇄도.. 연내 신작 출시 및 대형 게임사들과 지속적인 계약 기대



모바일, 콘솔, PC 게임의 개발 및 판매와 IP 라이선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게임업체 SNK가 어제 (1일) 공시를 통해 2019년 상장 이후 첫 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과 주주환원정책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배당은 1주당 3,332원 현금 배당이며, 배당금 총액은 684억원규모로 시가배당률은 19.8%이다. 배당기준일은 2020년 6월 16일이며, 주주총회를 통해서 2020년 8월 4일에 확정할 예정이다.

SNK인터랙티브 전세환 대표는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19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 등 유수의 아시아 국가 게임업체들과 지속적인 캐릭터 제휴 및 IP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꾸준한 성과를 올렸다”며 “연내에 신작 출시와 더불어 지속된 콜라보, 그리고 제휴로 더 높은 목표를 실현할 것으로 내다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배당은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로 실현된 자본이득이 커져 높은 분배금이 나온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업체측 설명이다. IP라이선스 사업 특성상 완전한 계약 체결이 이뤄진 뒤에도 수익이 발생하는 과정이 다소 길어 주주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SNK측은 현재 보유 중인 200여개의 IP가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적으로도 가치가 증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주주친화정책을 펼쳐 주주가치 제고에 힘쓸 계획이란 포부를 전했다.<끝>

<자료 문의>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전성국 대리 (010-5477-0979 / skchun@snkcorp.co.kr)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이은수 사원 (010-4491-7537 / eslee@snkcorp.co.kr)

<SNK 인터랙티브 소개>

SNK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로 일찍이 전 세계에 수많은 게임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 공모기업 중 하나로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아랑전설’ ‘메탈슬러그’ ‘사무라이 스피리츠(사무라이 쇼다운)’ 등 1990년대를 풍미한 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행한 IP들 외에도 콘솔과 모바일 게임을 지속해서 개발 및 판매하며 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으며, 신규 IP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